

# 무주, 내년도 예산 3567억 편성

### 올해보다 364억 증가... 14일 의회심의 통해 확정

무주군 황인홍 무주군수가 2019년도 예산을 3,567억 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364억 원(11.36%) 증가한 규모로 민선 7기 군정목표인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군에 따르면 일반회계가 307억 원(10.8%)이 증가한 3,137억 원, 특별회계가 56억 원(1.5%) 증가한 430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증가했으며 세출은 농림분야에 666억 원(21.2%), 사회복지 분야에 542억 원(17.28%), 문화 및 관광분야에 367억 원(11.7%)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 교육, 안전 등 분야는 18억 원이 증액된 284억 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7억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49억 원, 국제화교육센터 운영에 7억 원

등을 편성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올해 예산에 81억 원을 더한 367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반딧불축제지원 25억 원, 산골영화제 6억 3천만 원, 태권브이랜드 조성 30억 원,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 31억 원 등을 반영한 규모다.

환경보호 분야는 올해보다 193억 원을 편성(90억 원 증액),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18억 원)과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20억 원), 생태관광지 조성(8억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올해보다 58억 원이 증가했으며 608억 원의 예산으로 생계급여 34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4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6억 원 등을 지원한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66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43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무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시설확충 24억 원, 마을 공

동수집장 구축 19억 원, 농기계구입지원 16억 원, 농어촌 생활환경경비 30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4억 원 등이 반영됐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올해보다 6억 원이 증가한 15억 원을 편성해 전 통시장 시설현대화(6억 원), 무주사랑상품권 운영(1억 8천만 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28억 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4억 6,000만 원, 소화전정비 47억 원, 농어촌입대주택 건립 14억 원, 무주군 도시공원 조성 8억 원 등을 반영한 369억 원을 편성(29억 원 증액)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019년도 예산은 사람과 자연, 농촌의 가치가 공존하는 품격 있는 무주, 미래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꿈과 희망이 있는 무주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했다"며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체계 구축

### 유관기관·민간단체 등 단계별 비상근무 편성

장수군은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효율적인 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함께 단계별 비상근무를 편성해 24시간 상황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에 나섰다.

단계별 비상근무 편성은 준비단계와 보강단계, 비상단계(3단계) 총 3단계로 편성했다.

평상시에는 준비단계로 재해대책팀장 총괄로 인력 2명을 배치해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상시대비 한다.

대설예비특보나 대설주의보 등 기상 특보가 발효 될 경우에는 보강단계에 돌입해 안전재난과장 총괄로 상황실과 재해대책팀으로 나누어 사전 대비태세를 갖춘다.

비상 1단계는 대설주의보·경보가 발효될 경우로 부군수 총괄, 재해대책팀을 비롯한 장수경찰서와 소방서, 자율방범대, 읍·면 등 유관기관 합동인력 44명을 편성해 비상사태 대응에 돌입한다.

대설경보 또는 국지적인 재난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비상사태 2단

계로 전환해 군수 총괄 아래 안전재난과와 재해대책팀, 유관기관 등 48명의 인력을 배치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비상단계 3단계는 관내 광역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판단했을 경우 군수 총괄로 51명의 인력이 투입돼 현장 및 착형 관리 및 대책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군은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설해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강설에 대비해 도로변에 67개소의 제설함을 설치하고 산간고지대 급경사 급커브 구간을 중심으로 모래주머니를 비치했으며 소금, 친환경 제설제 등 제설자재 1,930여 톤을 확보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장수군 사과 유통기반 확충 박차

### 생산자 교육·저장시설 설치 등

장수군이 장수사과의 유통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과 유통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장수군에 따르면 군은 농림축산

식품부의 공모 2개년 사업인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에 신청해 지난 4월 장수농협이 대상자로 선정돼 사과 품질관리와 수확 후 관리, 상품 유통체널의 다양화 등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지난달 20일에는 장계농협이 2019년 사업대상자로 선정, 각 10억씩 20억의

예산으로 생산자 조직화 교육과 컨설팅, 세척사와 유통, 저장시설 설치 등 사과 유통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앞서 군은 사과 상품화를 위해 차별화된 최첨단 선별라인을 설치해 작업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5년부터 활용해오던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선별기 교체에 1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민 모두 안전보험혜택 받아

### 절차 없이 자동 가입... 타지역서 사고나도 보험금 지급

진안군은 군민이면 누구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 재해와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모든 군민과 주소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봤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총 12종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의료사고 법률지원의 경우 변호사 착수금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지급한다.

군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군은 매년 군민안전보험을 재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은 안심하고 안전보험을 활용해 달라"면서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보장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매아리



# 무주군 가족실습농장 김장행사

무주군은 4일 안성면에 소재한 귀농·귀촌게스트 하우스에서 2018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 김장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장행사는 올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입교한 교육생들이 그동안 직접 재배한 농산물(배추와 무)로 김치를 담가 지역과 나누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입교생 및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해 김장 350포기를 담갔다.

김치 담그기에 앞서 지난 11월 30일에는 교육생들이 직접 배추와 무를 수확해 의미를 더했으며 4일 김치 담그기가 끝나고서는 화합의 시간을 갖고 우의를 다졌다.

입교생 김 모 씨(서울)는 "직접 심고 수확해 김장까지,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무주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체험한 농장생활이 소소하지만 큰 보람으로 안겨져 기쁘고 정착을 하는데도 큰 용기가 될 것 같아 흐뭇하다"고 전했다.

올해 3월 입교했던 7세대 10명의 입교생들은 감자와 옥수수, 토마토, 버섯 배추, 무 등을 재배하고 농기계 안전교육 및 실기, 공동경작지 제작작업 및 페비닐 수거, 퇴비, 해충관리, 귀농·귀촌 입교교육, 6차 산업 인증과정 교육 등을 이수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태권도지원육성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무주군태권도지원육성추진위원회 위촉

### 태권도원 활성화 기대

무주군태권도지원육성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지난 3일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기념식과 현안사업보고, 총회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 이광철 前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관내·외 태권도 관련 인사들과 주민 등 22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태권도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며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

이 태권도와 더불어 무주 발전을 견인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철 위원장은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등 유관기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태권도의 성지 무주를 온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민·관이 합심해 모두가 바라는 성과를 이뤄 낼 수 있도록 위원회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주군 태권도지원육성추진위원회는 2005년 4월 창립된 이래 태권도원 조성과 태권도원의 활성화, 그리고 태권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장학숙 정원 새 단장

진안장학숙(원장 백정숙)은 최근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자 장학숙 정원을 새 단장했다.

먼저 장학숙 정원에 자리 잡고 있는 소나무 2그루가 가늘고 길게 자라 태풍과 비바람이 불 때면 주변 주택단지를 덮칠 듯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어, 진안군청 산림과의 도움을 받아 가지를 베어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 조치를 취했다.

또한 장학숙 뒤편의 가늘고 촘촘하게 자란 나무들을 솎아내고 외부부를 전지하는 등 모양새를 다듬었으며, 쌓여 있던 낙엽들도 모두 긁어모아 정리하는 등 아름다운 정원으로 거듭났다.

백정숙 원장은 "깨끗한 환경 조성 뿐 아니라 입사생들의 편안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